

## 한국 아동의 성인 및 또래 권위에 대한 개념 연구

Korean Children's Concepts of Adult and Peer Authority

김 정 민\*

Kim, Jung Min

### ABSTRACT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Korean childrens concepts of authority. Childrens judgments about commands of persons with varying age, social position, and knowledge were assessed. 48 subjects from the first, third, and fifth grades were presented with portrayals of persons giving children commands regarding two types of events: fighting and a game rule dispute. Subjects evaluated the legitimacy of commands and chose between different persons giving opposing commands. With regard to a command to stop fighting, subjects accepted the legitimacy of adult and peer authorities, as well as an adult without a position of authority. Subjects rejected commands that failed to prevent harm even when given by an adult authority. With regard to a game rule dispute, subjects most heavily weighted knowledge in evaluating the authority commands. The findings show that Korean children do not have a unitary orientation to adult authority, and have implications for an understanding of individuals' conceptions in the context of a cultural ideology emphasizing reverence for authority.

**Key Words** : 권위개념(concepts of authority), 성인 및 또래 권위(adult and peer authority), 문화(culture)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1월 3일

\* 한양대학교 BK 21 디지털 경영교육 연구센터 연구 교수, E-mail : jmkim@onebox.com

## I. 서론

최근 몇 년간 언론 매체들을 통해 보도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부모 및 교사의 권위 실추 실태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권위 인물 부재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다. 아동과 권위 인물사이의 원활한 관계 형성 및 발달은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요소이다. 권위의 관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권위의 순응을 통한 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여왔다 (Kohlberg, 1970; Piaget, 1932; Rawls, 1971). 일반적으로 어린 아동들의 권위에 대한 개념은 성인들의 연령이나 체격의 크기, 힘에 대한 존경심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이며 구별화(differentiated) 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이러한 관점은 상당부분 Piaget(1932)의 주장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즉 어린 아동들의 도덕적 판단은 타율적(heteronomous)이라는 것이다. 타율적 도덕 판단은 성인 권위 인물에 대한 일방적 존경심으로 형성되어지며 성인이 지시하는 명령과 규칙들은 정당함(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엄격히 고수 되기를 요구 받는다.

그러나 아동의 권위 개념에 대한 연구, 즉 권위 인물의 정당성 및 합법성, 또는 권위 인물의 지시를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 여부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에 와서야 연구자들은 권위 인물이 내리는 명령의 정당성에 대해 아동이 어떻게 사고하는가를 보다 직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들이 권위인물의 명령이 정당한 것인가를 평가하는데 있어 구별화(differentiated) 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Braine, Pomerantz, Lorber & Krantz, 1991;

Damon, 1977; Laupa, 1991; Laupa & Turiel, 1986; Tisak, 1986). 즉, 권위 인물의 명령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아동들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특성들과 상황적 특징들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의 권위에 대한 개념 연구들 거의 대다수는 미국에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권위에 대한 저항을 허용하는 특정문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Goer, 1948; Triandis, 1990). 국내의 경우 또한 소수의 연구들(김경희, 1992; 정영숙, 장혜자, 1999)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와 부모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권위 유형지각 등을 다루고 있을 뿐, 권위 인물이 내리는 지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하는 요인 및 상황적 연계성, 또는 부모를 제외한 다른 권위 인물에 대한 개념 연구는 찾아 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 아동들이 권위 인물의 명령들을 평가하는데 있어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특성과 상황적 요인들을 어떻게 참조하는가를 살펴보고, 아동의 권위 개념은 권위에 대한 일반적인(unilateral) 수용이나 거부가 아닌 다면적이며(multifaceted), 상호 호혜적인(reciprocal) 개념임을 고찰하는 데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가 일선 현장에서의 아동과 권위 인물간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보다 근본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위 개념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 중 처음으로 Damon(1977)은 성인 및 또래 권위의 명령을 평가하는 데 있어 아동들은 관련 행동 유형과 특정 사회적 맥락 안에서 권한의 범위를 고려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Damon은 아동들이 각자의 방을 청소하라는 부모의 명령의 정당성

은 받아들인 반면,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명령의 정당성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들은 어떤 일정 범위 내에서 또래 권위의 명령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예를 들면, 팀장은 팀의 활동에 관한 명령은 할 수 있으나 팀과 연관되지 않은 활동(가게에 가서 팀장에게 줄 음식을 사오라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명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과정은 Laupa와 그의 동료들(Laupa, 1991, 1994; Laupa & Turiel, 1986, 1993)의 일련의 연구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구들이 아동들이 어떻게 명령의 행동 유형과 권위 인물의 특성(성인 및 또래 신분, 사회적 지위), 상황적 맥락 등을 고려하는지에 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한 연구에서(Laupa & Turiel, 1986), 아동들은 두 가지 사건들에 관한 명령의 정당성을 평가하였다. 한 사건은 순서 지키기(turn-taking)로서 학교 운동장에서 두 아동이 동시에 미끄럼틀에 도착해서 누가 먼저 탈 것인지 실랑이 하는 상황이다. 다른 사건은 학교 운동장에서 치고 받고 싸우고 있는 두 아동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들은 성인 권위 인물(예를 들면, 교사)과 또래 권위 인물(학교가 지정하는 어떤 특정 지위에 있는 아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시 내용이 미끄럼틀에서 순서대로 번갈아 타되 한 아이에게 먼저 타도록 지시하는 것과 싸움을 중지하도록 지시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한편, 아동들에게 각기 다른 사람들(성인 권위 인물, 또래 권위 인물, 학교 내에서 특정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및 또래 인물)로부터 서로 상반된 명령들이 주어진 경우도 조사되었다. 상반된 명령의 유형들은 두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되었다. 순서 지키기의 경우, 명령

을 내리는 각 사람들이 서로 다른 아동에게 먼저 미끄럼틀을 탈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 결과, 아동들은 또래 권위 인물 보다는 성인 권위 인물에게, 학교내 사회적 지위를 갖지 않은 성인 보다는 또래 권위 인물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피해(physical harm or fighting)의 경우, 아동들은 지시의 정당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특정 행위의 타당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은 싸움을 계속 할 것을 지시하는 또래 아동(학교내 특정 지위를 갖고 있든지 아니든지)이나 학교내 특정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싸움을 계속 할 것을 지시하는 성인 권위 인물에게보다 더 많은 권위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들은 이러한 평가들에 대한 이유로서 특정 행위가 타인에게 끼치는 해로운 결과를 언급하였다. 신체적 피해(physical harm) 사건과는 달리 순서 지키기(turn-taking) 사건의 경우는 상반되는 지시들 중 어느것도 신체적 상해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는 않으며, 두 아동 모두 자기차레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아동들은 성인 권위가 또래 권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교내 특정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보다는 또래 권위의 지시를 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판단이 단지 어른에 대한 존경심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사회 조직에서의 권위의 역할에 대한 아동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 Laupa(1991)는 순서 지키기 사건을 사용해 권위 인물의 성인 및 또래 신분, 상황에 대한 지식 정도, 학교 내에서의 지위 등이 아동의 권위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 상황에 대한 지식의 유무라는 요인이 새로이 첨가되었다. 예를 들면, 상황에 대한 지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묘사 되어진 교사의 경우 학교에 새로 부임하여 아이들간의 논쟁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적절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황에 대한 지식은 소유하고 있으나 어떤 특정 지위는 갖고 있지 않은 인물(전직 교사)의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연구 결과, 아동들이 성인이라는 요인 하나로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또 다른 증거를 제공하였다. 아동들 대다수는 학교 내에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성인 및 또래(상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를 포함하여)가 내리는 지시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서로 상반된 지시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아동들은 성인 신분보다는 상황에 대한 지식과 학교 내 사회적 지위에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면, 전직 또래 권위의 지시가 학교와 관련이 없는 성인이나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직 교사의 지시보다 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상응되는 결과로, 상황에 대한 지식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또래 권위가 상황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사회적 지위는 가지고 있지 않은 전직 교사의 지시보다 우선되었다. 상황에 대한 지식이 사회적 지위와 대치될 경우, 구체적인 예로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현직 교사와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직 교사의 지시가 서로 상충될 경우에 아동들의 반응은 양쪽으로 비슷하게 양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Laupa 연구의 결과들은 미국 아동들의 권위 개념이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존경심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아동들은 상황에 따라 권위를 받아들이기도 하며 때로 거부하기도 한다. 더욱이

아동들은 어떤 제도적 장치 내에서 한 개인이 맡고 있는 역할이나 당면 문제에 관련된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미국에서 행해진 것으로 권위에 대해 지향하는 바가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자유와 자치, 권리를 강조하는 서구 사회의 특성들이 권위에 대한 존경과 순종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Bellah, Madson, Sullivan, Swidler, & Tipton, 1985; Triandis, 1990).

본 연구의 주요부문은 한국 아동들의 권위개념을 조사하는 것으로서 문화적 이념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은 부모와 교사를 포함하여 권위에 대한 아동들의 존경과 경의심을 강조하는 사회로 간주되어져 왔다(Crane, 1974, Rohner & Pettengill, 1985). 최근 수년간 한국 사회의 산업화는 가속화되어져 왔지만 대체적으로 권위관계의 전통적 위계구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인다(Bailey & Lee, 1992; Kalton, 1989). 이 같은 주장들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는 권위에 대한 존중감, 사회 위계 질서에서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개인보다는 집단의 우위 등을 크게 강조하는 아동 교육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학교들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또래 권위의 역할 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또래 권위 체제는 아동들에게 한국의 문화적 성향과 위배되는 경험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 아동의 권위 개념이 지시 사항의 정당성, 지시를 내리는 인물의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구별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두 명의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상황(미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상황)과 게임 규칙에 대해 아이들이 논쟁하고 있는 상황을 통하여 한국 아동의 권위개념을 평가 하였다. 게임 규칙에 관한 사

건은 지시를 내리는 인물의 지식과 사회적 속성 두 가지 모두를 포함시키기 위해 고안 되었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의 48명의 중산층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참여 아동의 분포를 살펴보면, 1학년(평균연령 7.15세), 3학년(평균연령 9.08세), 5학년(평균연령 11세)생으로 각 학년 당 16명의 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녀의 비율은 같았다. 본 연구에 참가한 아동 가운데에는 또래 권위자들(반장, 부반장)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Laupa와 Turiel의 연구(1986) 및 Laupa의 연구(1991)에 기초하여 설정되었다. 아이들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묘사하는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아동의 권위 개념을 평가하였다. 첫번째 사건은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두 아동을 다른 것으로서 싸움을 중지하거나 계속하라는 서로 상반된 명령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두번째 사건은 피구 게임(한국 아동들 간에 흔히 행해지는 놀이)의 규칙에 대해 논쟁이 일어난 두 아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몇 명의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피구를 하다가 한 아이가 넘어져서 한쪽 발이 경계선 밖으로 나간 경우이다. 한 아이는 한쪽 발이 선 밖으로 나간 것이 반칙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아이는 반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에서 사용된 순서 지키기 사건 대신 특정 게임 규칙에 관련된 사건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권위의 속성 중 지식 요인이 직접적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어떤 특정 게임 규칙을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순서 지키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게임 사건에는 논쟁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어떤 지시도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위의 두 사건을 중심으로 세 부문에 있어서 아동의 권위 개념을 조사하였다. 첫째, 아동들에게 사건과 연관된 행동 자체(싸우는 것, 게임 규칙을 지키는 것)를 평가하도록 한다. 둘째, 아동들에게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각 이야기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여 사건에 개입해 아이들에게 지시를 내린다. 아동들은 이야기 속에서 지시를 내린 각 사람의 정당성과 그 지시에 따를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아동들은 또다른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각 이야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여 서로 다른 상반된 지시 사항을 내리게 되며 아동들은 두 가지 지시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다. 위의 모든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아동들은 자신들의 응답의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되었다. 신체적 피해 사건의 경우 게임 사건보다 아동들에게 제시되는

이야기의 수가 적으므로 순서상 언제나 먼저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로는 아동들의 응답에 있어서 사건 제시 순서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Laupa & Turiel, 1986). 아동들에게 제시되는 각 이야기들의 세부 사항들(예를 들면, 등장하는 아이들의 이름, 사건이 일어난 날짜)은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아동들이 이 이야기들을 여러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하나의 계속되는 이야기로 잘못 이해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이유에서이다. 아동들은 약 40-50분 동안 개인적으로 인터뷰하였으며, 1학년과 3학년의 저학년 아동들에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중간 휴식을 준 후 다시 진행하였다.

### 1) 신체적 피해 사건

행위 평가. 운동장에서 두 아동이 싸우고 있는 상황을 말해준 후, 싸우는 것에 대한 어떤 학교 규칙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규칙이 있다면 만일 그런 규칙이 없을 경우에 싸워도 괜찮은 것인지와 그 이유를 묻는다. 그런 규칙이 없다고 답한 아동들에게는 싸우는 것이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와 그 이유를 질문 한다.

한 사람이 지시하는 경우. 아동들은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각 이야기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여 아이들에게 싸움을 중지할 것을 지시한다. 이전 연구들에 의해 밝혀진 바로는 싸움을 중지하라는 지시의 정당성은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특성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아동들에게는 몇 명의 소수 제한된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의 경우들만이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인/또래 신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사와 반장이 제시 되었고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인물(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성인) 또한 포함되

었다. 각 이야기에서는 아동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정당성과 그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정당성에 대한 두 가지 질문으로는, '너는 X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니?'와 '어째서 X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또는 없지)?'이며, 지시 순중에 대한 다른 두 가지 질문으로는 '아이들은 X가 말한 것을 해야 하니?'와 '왜 X가 말한 것을 해야(또는 하지 말아야) 하지?'이다.

두 사람이 지시하는 경우. 각 이야기에 두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여 서로 반대되는 지시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싸움을 중지할 것과 다른 한 사람은 싸움을 계속할 것을 명령한다. 이 비교의 목적은 아동들이 정당성과 순종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지시된 행위평가에 의존하는지 아니면 지시를 내리는 인물의 신분이나 지위를 염두에 두는지 확인하고자 함이다. 상반된 지시를 내리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성인 권위 인물(교사)로서 싸움을 계속하도록 지시하며, 또 다른 한 사람은 성인 신분과 사회적 지위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서 싸움을 중지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 경우로 구성된다. 따라서, 다음 세가지 경우가 제시되는데, 성인 권위 대 또래 권위, 성인 권위 대 성인 비권위, 성인 권위 대 또래 비권위 등이다. 아동들에게 이 서로 다른 명령들 중에 어떤 것을 따라야 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질문 한다.

### 2) 게임 사건

행위 평가. 예비 조사에서 모든 연구 대상 아동들은 피구 게임 규칙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들은 피구 경기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와 만일 그러한 규칙이 없다면

경계선 밖으로 나갔을 경우 괜찮은지를 질문한다.

한 사람이 지시하는 경우. 각 이야기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여 아이들에게 규칙이 위반되었으며 논쟁을 중지하고 다시 경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아동들이 어떻게 성인 및 또래 신분, 사회적 지위,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지식 등의 속성을 평가하는지 조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세가지 속성을 각기 다르게 결합된 다음의 인물들이 무작위 순서로 제시되어진다. 게임 규칙을 알고 있는 교사(사회적 지위, 지식을 가진 성인), 규칙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새로 부임한 교사(사회적 지위는 있으나 지식이 결여된 성인), 규칙을 알고 있는 반장(사회적 지위와 지식을 가진 또래), 규칙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새로 선출된 반장(사회적 지위는 있으나 지식이 결여된 또래), 규칙을 알고 있는 그 학교의 아동(지식은 있으나 사회적 지위가 결여된 또래), 규칙을 알고 있는 학교 길 건너 사는 성인(지식은 있으나 사회적 지위가 결여된 성인), 규칙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학교 길 건너 사는 성인(사회적 지위와 지식이 결여된 성인)이 포함되었다. 아동들이 지시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한 후, 신체적 피해 사건에서 사용된 정당성과 순종에 관한 동일한 질문들이 주어진다.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는 있으나 지식이 결여된 또래의 경우, 새로 뽑힌 반장이 피구 게임 규칙을 잘 모르는 것으로 묘사한 후, 다시 연구 대상 아동에게 이 반장이 피구 규칙을 잘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는지에 대해 확인해 본다. 특히, 1학년 연구 대상 아동들에게는 제시되어지는 인물들에 따라 각기 다른 그림들을 보여 주어 이해를 도왔다.

두 사람이 지시하는 경우. 각 이야기에 두 사람이 등장하여 게임 규칙이 위반 되었는지 아닌지에 관해 상반된 견해를 밝힌다. 신체적 피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게임을 진행시킴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다른 의견에 대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질문 한다. 세 가지의 경우가 제시되는데 게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권위(새로 부임한 교사) 대 게임 지식이 있는 또래 권위, 게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권위 대 게임 지식이 있는 성인 비권위, 게임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권위 대 게임 지식이 있는 또래 비권위이다. 이 경우는 아동들이 성인 신분과 사회적 지위에 더 큰 비중을 두는지, 아니면 지식에 더 큰 비중을 두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 3. 자료 분석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와 게임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평가는 Laupa(1991)와 Laupa & Turiel (1986)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것과 동일한 분석 체계에 의해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아동이 제시한 평가에 대한 이유들은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전 연구(Song, Smetana & Kim, 1987)에서 사용되었던 범주들(categories)로 처리하였다. 한 사람이 지시한 경우와 두 사람이 지시한 경우들 역시 질문에 대한 응답들은 Laupa와 그의 동료들에 의한 연구에서 사용된 체계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지시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와 그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긍정, 부정, 또는 일관성 없음(연구 대상 아동이 반복해서 결정을 번복한다던가 또는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으로 나누어졌다. 두 사람이 지시를 내린 경우에 대한 응답은 둘 중 한 사람을 선

〈표 1〉 이유 설명 범주

범 주	정 의
권위 경향	
권위 수용	역할을 맡은 인물이 권위를 가진다는 단순한 주장 예)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의무니까”
성인 신분	성인 신분을 기반으로 하는 권위 예) “어른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지식 속성	권위 역할에 부합하는 지식, 또는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권위 예) “게임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사회적 지위 비구별화	사회 체계에서의 지위에서 오는 권위 예) “반장이니까”, “학교 선생님이니까” 각 인물이 가지는 속성들을 구별 또는 구별화 시키지 못함
행위 경향	
타인의 복지	타인의 이해 관계나 피해 방지에 대한 언급 예) “친구가 다치고 피가 나니까”, “친구가 아프니까”
공정성에 대한 호소	사람들 간의 권리 균형을 유지하는 것 예) “그게 공평하니까”
실용성	어떤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춤 예) “게임을 계속 해야 하니까”
처벌 회피	처벌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언급 예) “그러면 혼나니까”, “벌 받으니까”

택하거나 일관성 없음(아무도 택하지 않은 경우, 응답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 또는 둘 다 같다고 말하는 경우)으로 처리하였다. 지시의 정당성, 순종 여부, 상반된 지시 중 선택하는 질문들에 대한 아동의 이유 설명은 표 1에 요약되어진 코딩 체계(Laupá, 1991)에 의해 분류되었다. 아동들이 제시한 이유 설명은 대략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권위 성향’ 범주로서 사회적 지위와 같이 지시를 내리는 사람에 관련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는 ‘행위 성향’ 범주로 지시된 행위 자체의 성격과,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 관련된 진술을 가리키며, 세째는 ‘처벌 회피 성향’ 범주로 결과가 불러오는 구체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다. 아동들이 이 세 범주 중 한 가지 이상의 범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그런 경우에는 그 중 두드러진 범주를 채택하였다.

연구 자료의 20%는 무작위로 추출하여 또다

른 판정자에 의해 코딩되었는데, 신체적 피해 사건과 게임 사건의 경우, 행위 평가에 대한 판정자간 일치율은 모두 각각 100%였다. 행위 평가에 대한 이유 설명의 경우, 신체적 피해 사건은 92%, 게임 사건은 93%의 일치율은 보였다. 한 사람이 지시한 경우에 있어서, 신체적 피해 사건은 100%, 게임 사건은 92%에서 100%의 일치율을 나타내었다. 질문들에 대한 이유 설명의 경우, 신체적 피해 사건은 92%~100%, 게임 사건은 83%에서 100%의 일치율을 보였다. 두 사람이 지시한 경우에 있어서 판정자간 일치율도 100%를 나타내었다. 또한, 질문들에 대한 이유 설명에 대한 일치율은 다음과 같다: 또래 권위 대 성인 권위는 83%, 성인 비권위 대 성인 권위는 83%, 또래 비권위 대 성인 권위는 67%를 보였다. 게임 사건에는 두 사람이 지시한 경우 이유 설명의 일치율은 92%에서 100%에 걸쳐 분포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각 질문에 대해 나이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nonparametric 기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학년에 따른 성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다음에 나오는 결과 분석에서는 성을 통합하여 산출하였다. McNemar의 chi-square검증으로 질문들 간의 planned comparisons이 실시되었다.(10명 미만의 연구 대상 아동들이 응답을 변경한 경우에는 binomial 검증이 실시됨). Type I error를 통제하기 위해 alpha는 .01로 설정되었다.

#### 1. 행위 평가

아동들의 98%가 싸우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또 96%가 게임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보고하였다. 신체적 피해 사건의 경우, 이유 설명의 대다수는 행위 성향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주로 타인의 복지 범주(72%)에 편중되었다. 게임 사건의 경우, 거의 모든 이유 설명이 주로 실용주의(63%)와 공정성(35%)에 해당되었다.

#### 2. 정당성 및 순종에 대한 평가

신체적 피해 사건. 각 나이 그룹의 거의 모든 아동들(98%-100%)이 싸움을 중지하라고 지시하는 성인 권위 ( $\chi^2(1,48)=44.08, p<.005$ ), 또래 권위 ( $\chi^2(1,48)=48.00, p<.005$ ), 그리고 성인 비권위 ( $\chi^2(1,48)=48.00, p<.005$ )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Arcsine transformation(Marasculio & McSweeney, 1977)에 기초한 test of multiple comparison of proportions를 사용하였을 때 정당성과 순종의 이유 설명에 있어서 나이에 따

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이유 설명은 권위 성향 범주(사회적 지위 범주)에 속하였는데, 정당성에 대해서는 77%, 순종에 관하여는 58%가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행위 성향 범주에 속한 것으로는, 정당성과 순종에 관한 것이 각각 23%와 31%를 나타내었다. 또래 권위 평가에 대한 이유 설명은 권위 지향(사회적 지위) 범주와 행위 지향 범주로 비슷하게 나뉘어져 분포되었다. 성인 비권위의 경우, 이유 설명의 대다수는 권위 지향 범주에 속하였으나, 주로 성인 신분 범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정당성은 60% 권위 지향과 40% 행위 지향을, 순종은 63% 권위 지향과 33% 행위 지향을 나타내었다. 두 사람이 지시를 내린 경우에 있어서, 모든 아동들은 아이들에게 싸움을 중지하도록 지시한 인물을 선택하였는데,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90%가 행위 지향 범주(타인의 복지)를 사용하였다.

〈표 2〉 신체적 피해 사건에서 한국 아동들의 정당성과 순종에 관해 긍정적 응답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이유 설명 범주 비율

이유 설명 범주	지시를 내리는 인물					
	정당성 질문			순종 질문		
	성인 권위	또래 권위	성인 비권위	성인 권위	또래 권위	성인 비권위
권위 지향	77	48	60	58	44	63
행위 지향	23	46	40	31	52	33
처벌 회피	0	4	0	10	2	4

게임사건. 표 3은 지시된 명령이 정당하며 따라야 한다고 평가하는 아동들의 비율을 요약한 것이다. 각 나이 그룹에서 대다수의 아동들은

〈표 3〉 게임 사건에서 한국 아동들의 정당성과 순종에 관한 긍정적 응답 비율

지시를 내리는 인물	질 문							
	정당성 학년				순종 학년			
	1	3	5	합계	1	3	5	합계
지식을 가진 성인 권위	100	100	88	96	100	100	100	100
지식을 가진 또래 권위	100	88	94	94	94	94	88	92
지식을 가지지 않은 성인 권위	25	38	6	23	56	44	13	38
지식을 가지지 않은 또래 권위	0	6	6	4	38	13	6	19
지식을 가진 성인 비권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지식을 가진 또래 비권위	94	88	100	94	88	88	100	92
지식을 가지지 않은 성인 비권위	13	13	6	10	38	19	6	21

상황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 모든 인물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4에서는 대부분의 아동들이 지식을 가진 성인 권위( $\chi^2(1,48)=40.33, p<.005$ ), 지식을 가진 또래 권위( $\chi^2(1,48)=36.75, p<.005$ ), 지식을 가진 성인 비권위( $\chi^2(1,48)=48.00, p<.005$ ), 지식을 가진 또래 비권위( $\chi^2(1,48)=36.75, p<.005$ )를 각각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아동들 대다수가 지식이 결여된 인물이 내리는 지시는 정당한 것으로 판정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지식이 결여된 성인 권위( $\chi^2(1,48)=14.08, p<.005$ ), 지식이 결여된 또래 권위( $\chi^2(1,48)=40.33, p<.005$ ), 지식이 결여된 성인 비권위( $\chi^2(1,48)=30.08, p<.005$ )가 내리는 지시를 인정하지 않았다.

성인 신분, 지식, 그리고 사회적 지위 속성들 각각의 영향을 더욱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 McNemar test(Marasculio & McSweeney, 1977)를 실시하였다. 첫째로, 성인/또래 신분과 사회적 지위는 동일하게 갖고 있으나 지식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나는 두 인물들간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아동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게 그렇지 않은 인물보다 정당성을 더 부여하는 경향을

〈표 4〉 게임 사건에서 한국 아동들의 정당성과 순종에 관한 응답의 유의도 검증

		지시를 내리는 인물**						
		AA W/K	PA W/K	A-NA W/K	P-NA W/K	AA WO/K	PA WO/K	A-NA WO/K
$\chi^2$	정당성 질문	40.33*	36.75*	48.00*	36.75*	14.08*	40.33*	30.08*
	순종 질문	48.00*	33.33*	48.00*	33.33*	3.00	18.75*	16.33*

\*p<.005

\*\*AA = 성인 권위; PA = 또래 권위; A-NA = 성인 비권위; P-NA = 또래 비권위; W/K = 지식을 가지고 있음; WO/K =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

보였다. 지식이 결여된 성인 권위( $\chi^2(1,48)=33.03, p<.005$ )보다 지식을 가진 성인 권위를, 지식이 결여된 또래 권위( $\chi^2(1,48)=41.02, p<.005$ )보다 지식을 가진 또래 권위를, 지식이 결여된 성인 비권위( $\chi^2(1,48)=41.02, p<.005$ )보다 지식을 가진 성인 비권위의 정당성을 더 인정하였다. 지식은 동일하게 소유하고 있으나 사회적 지위의 유무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인물들간의 비교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지식을 가진 성인 권위자와 성인 비권위자간에 유의한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둘 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래 권위와 또래 비권위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며, 또한 둘 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성인 권위와 성인 비권위 사이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한 경우에만 성인 지위가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끼쳤는데, 1학년과 3학년 아동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 성인 권위자에게 또래 권위자보다 큰 정당성을 부여하였다(binomial,  $p=.004$ ). 그러나, 전체 아동들 중 23% 만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권위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였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주어진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에 관한 판단은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 병행하는 결과를 보였다(표 3, 표 4 참조). 대다수의 아동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네 인물들이 내리는 명령들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chi^2$ 의 범위는 48.00에서 33.33에 이르며 모두  $p<.005$ 에서 유의하였음). 또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또래 권위와( $\chi^2(1,48)=18.75, p<.005$ )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비권위( $\chi^2(1,48)=16.33, p<.005$ )가 내리는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권위자의 명령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한 아동들의 비율은 62%로 유의하지 않았다( $\chi^2(1,48)=3.00$ ). 그러나 arcsine transformation에 기초한 test of multiple comparison of proportions (Marasculio & McSweeney, 1977)결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권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유의한 나이차가 발견되었다( $U=7.87, p<.005$ ). Post-hoc 비교 분석 결과 1학년들이 5학년들에 비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권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령의 순종 여부에 있어서 그 외의 다른 나이차는 보이지 않았

다. 정당성 판단의 경우와 같이, 아동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게 다른 동일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으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인물보다 좀 더 순종하는 경향을 보였다(McNamar test는 28.03에서 26.03에 이르며,  $p<.005$ 에서 모두 유의함). 또한 아동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권위에게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비권위나(binomial,  $p=.008$ ) 또래 권위(binomial,  $p=.004$ )보다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표 5는 정당성과 순종 여부를 묻는 질문들에 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아동들의 이유 설명을 요약해 놓았다. 이유 설명에 있어서 유의한 나이차는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나이에 따른 그룹을 통합 하였다. 표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아동들이 제시한 이유 설명들은 그들이 정당성과 순종 판단시 고려하였던 속성들과 일치하였다. 다시 말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내린 명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이유 설명의 대부분은 지식 범주에 속하였다(성인 권위의 경우 85%, 또래 권위의 경우 69%, 성인 비권위의 경우 94%, 또래 비권위의 경우 81%). 표 5는 또한 사회적 지위 범주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래 권위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어느 정도 사용되어진 것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하게 순종에 관한 긍정적인 판단은 주로 지식 범주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성인 및 또래 권위에 대한 몇몇의 이유 설명은 사회적 지위 범주에 속하였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및 또래 권위에 대해 긍정적 응답을 한 몇 경우들은 주로 사회적 지위 범주의 이유 설명으로 이루어졌으며, 1학년과 3학년의 경우에 비구별화 범주(nondifferentiation)의 사용도 발견되었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비권위자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성

〈표 5〉 게임 사건에서 한국 아동들의 정당성과 순종에 관해 긍정적 응답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이유 설명 범주 비율

이유 설명 범주	지시를 내리는 인물*													
	정당성 질문						순종 질문							
	AA W/K	PA W/K	AA WO/K	PA WO/K	A-NA W/K	P-NA W/K	A-NA WO/K	AA W/K	PA W/K	AA WO/K	PA WO/K	A-NA W/K	P-NA WO/K	A-NA WO/K
권위 지향														
성인 신분	2	2	0	0	6	2	100	4	0	6	0	15	0	80
지식	85	69	0	0	94	98	0	58	59	0	0	75	91	0
사회적 지위	11	27	73	100	0	0	0	23	30	78	89	0	0	0
비구별화	0	0	27	0	0	0	0	0	0	6	11	0	0	10
행위 지향														
실용성	2	0	0	0	0	0	0	8	11	11	0	8	9	0
처벌 회피	0	0	0	0	0	0	0	6	0	0	0	0	0	10

\* AA = 성인 권위; PA = 또래 권위; A-NA = 성인 비권위; P-NA = 또래 비권위; W/K = 지식을 가지고 있음; WO/K =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음

\*\* 단지 소수의 아동들만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권위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또래 권위에게 정당성을 부여함.

인 지위 범주로 설명되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지시하는 상황은, 아동들이 성인 지위나 사회적 지위는 가지고 있으나 지식은 가지고 있지 않은 인물들보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내리는 명령에 우선권을 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되었다.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권위자(교사)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나 성인 지위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는 아래의 세 사람 각각과 짝지워졌다. 대다수의 아동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권위보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식이 결여된 성인 권위보다 지식을 가진 또래 권위와 지식을 가진 성인 비권위를(각각 94%,  $\chi^2(1,48)=36.75, p<.005$ ), 지식이 결여된 성인 권위보다 지식을 가진 또래 비권위를(85%,  $\chi^2(1,48)=24.08, p<.005$ )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택들의 98%가 지식 범주로 설명되었다(그러나 또래 비권위와 성인 권위간 비교에 대한 해석자간 일치율은 67%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IV. 논의 및 결론

권위에 대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서양 문화에서 다루지는 아동들의 권위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에 반해,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은 권위를 중시하고 권위 인물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과 권위 인물과의 갈등 현상은 부모의 권위와 교권의 부재를 부추기며 우려를 낳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

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한국 아동들의 권위 개념을 조사하는 것으로, 아동이 권위 인물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지시를 따르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개념적 및 상황적 요인들을 분석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 한국 아동들은 권위가 단지 성인이라는 이유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 지시하는 모든 명령들을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지시 사항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한국 아동들은 학교에서의 사회적 지위 속성뿐 아니라 상황에 대한 지식 속성의 연관성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체적으로, 한국 아동들의 권위 개념은 권위 지위에 있는 성인들에 대한 일방적인 신뢰나 존경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동들은 성인 신분과 더불어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을 고려하였으며, 지시된 행위를 평가하여 권위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신체적 피해 사건의 경우, 아동들은 지시된 행위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에서 성인 권위, 또래 권위, 성인 비권위는 지시를 내릴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싸움을 중지하라고 지시를 내릴 경우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어떤 특정 상황 하에서는 아동들이 또래 권위의 지시나 교내에서의 권위적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들의 지시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래 권위의 지시를 받아들인다는 점은 미국에서 진행되어온 연구 결과(Laup & Turiel, 1986), 즉 싸움을 중지하라는 또래 권위의 지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또한 한국 아동들은 지시를 정당화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지위와 성인 신분의 역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싸움 사건의

경우, 아동들은 지시를 내리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떠올려 그들의 판단 근거로 삼는 경향이 나타났다. 교사나 또래 권위의 경우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성인 비권위자의 경우 성인 신분을 언급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아동들은 싸움을 중지하라는 성인 비권위자의 지시를 성인 신분에 기초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지시를 내리는 상황에서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아동들은 지시되어지는 행위 내용을 고려한다는 것과 성인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지시의 정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아동들은 싸움을 계속하라고 지시하는 교사보다는 싸움을 중지하라고 지시하는 또래 권위나 성인 비권위, 심지어 또래 비권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아동들의 판단에 대한 이유 설명은 싸움을 중지하도록 한 지시에 우선권을 준 것이 싸움으로 초래될 신체적 상해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게임 사건의 논쟁에 대한 지시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한국 아동들은 신체적 상해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서조차 구별화 된 권위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규칙에 관한 지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그 상황에 대한 지식 여부로서 지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성인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를 우선한다. 사회적 지위를 자신 성인 권위자(예를 들면, 교사)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지시를 내리는데 있어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더욱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인 권위자의 경우, 권위적 위치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래나 성인에 비해 우선권을 얻지 못하였다.

대다수의 한국 아동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과 더불어 그들이 내리는 지시 또한 따라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아동들은 적절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그 지시는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연령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가장 어린 아동들(1학년)이 나이가 많은 아동들(5학년)에 비해 권위를 가지는 위치에 있는 성인의 지시가 설사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바, 권위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 문화적 영향 뿐 아니라 몇 가지 다른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개개인의 사회적 이해는 문화적 이념에 직접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Spiro(1993)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성인 권위에 대한 경의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념적 특성(Crane, 1974; Kalton, 1989)은 한국 아동의 권위 개념 사고에 있어 분명하지 않았다. 권위를 가지는 인물들이 내리는 지시 사항들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한국

아동들은 몇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였는데 행위의 내용, 상황에 대한 지식 유무, 그리고 사회적 지위 등이다. 또한, 한국 아동들은 그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성인에 대한 존경심만을 강조하는 문화적 이념과 상반된 경험들이 존재하고 있는 점, 구체적으로 실제 교실에서는 아동들 자신이 합법적인 권위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연구 결과, 아동들은 또래 권위의 정당성을 받아들였으며, 어떤 특정 상황 하에서는 성인보다 또래에게 더 큰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아동들이 권위 관계에 대해 어떤 지배적인 문화적 경향을 띠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다양한 구별화 된 권위 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권위 인물이 지시하는 명령의 내용과 권위 인물의 특성을 고려하는 다면화 된 개념적 과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한국 아동들은 피해를 방지하는 것에 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며, 그것을 권위를 평가하는데 적용시키고, 또한 권위가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의 개념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 참 고 문 헌

- 김경희(1992). 아동이 지각한 부모권위와 부모양육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0(1), 339-348.
- 정영숙, 장혜자(1999). 초, 중학교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권위. *한국생활과학회지*, 8(19), 1-14.
- Bailey, B., & Lee, G. H. (1992).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Florida Association of Children Under Six. Orlando, Florida.
- Bellah, R. N., Madsen, R., Sullivan, W. M., Swidler, A., & Tipton, S. M. (1985). *Habits of the heart :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New York : Harper & Row.
- Braine, L. G., Pomerantz, E., Lorber, D., & Krantz, D. H. (1991). Conflicts with authority : Children's feelings, actions, and justif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829-940.
- Crane, P. S. (1974). *Korean patterns* (3<sup>rd</sup> ed.). Seoul : Kukje

- Damon, W. (1977). *The social world of the child*. San Francisco : Jossey-Bass.
- Gorer, G. (1948). *The American people : A study of national character*. New York : Norton.
- Kalton, M. C. (1989). Korean ideas and values. *The Korea papers : Profiles in Educational Exchange*. NAFSA Field Service Working Paper No. 10. Washington, D.C. NAFSA Publications Department.
- Kohlberg, L. (1970). *Levels and stages in moral development*. In E. Nancy & R. S. Theodore (Eds.). *Moral education*.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Laupa, M. (1991). Children's reasoning about three authority attributes : Adult status, knowledge, and social posi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7, 321-329.
- Laupa, M. (1994). Who's in charge : Preschool children's concepts of authorit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9, 1-17.
- Laupa, M., & Turiel, E. (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adult and peer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 405-412.
- Marasculio, L. A., & McSweeney, M. (1977). *Nonparametric and distribution-free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Monterey, CA : Brooks/Cole.
- Piaget, J. (1932). *The moral judgment of the child*.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aul.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ong, M. J., Smetana, J. G., & Kim, S. Y. (1987). Korean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conventional transgress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3, 577-582.
- Spiro, M. (1993). Is the Western conception of the self 'peculiar' within the context of the world cultures? *Ethos*, 21, 107-153.
- Tisak, M. (1986). Children's conceptions of parental authority. *Child Development*, 57, 166-176.
- Tr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1989, Vol. 37 (pp. 41-133). Lincoln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iel, E. (1994). Morality, authoritarianism, and personal agency in cultural contexts. In R. J. Sternberg, & P. Ruzgis (Ed.), *Personality and Intelligence* (pp. 271-299).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uriel, E., & Wainryb, C. (1994). Social reasoning and the varieties of social experiences in cultural contexts. In H. W. Reese (Ed.), *Advances in child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25 (pp. 289-326). New York : Academic Press.